

“기독교인의 품위와 고상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 이종윤 원로목사

16세기 개혁자들은 복음의 본질이 변질, 왜곡 그리고 형태가 손상되었을 때 과감하게 본래의 복음인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성경의 교회 모습보다는 무례하고 천박한 종교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변두리로 몰아내고 제 주장 세우기에 급급하고 어디서나 최고가 되고 자기 것만 최선이라고 우겨대는 모습을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반기독교적, 반예수, 반성경운동이 확산되고 Anti기독교 사랑하는 모임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무례나 무지를 탓하기 전 우리 자신이 개혁의 대상임을 시인해야 한다.

어떻게 고상하고 품격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앞에서 신전(Coram Deo)의식을 갖고 사는 이가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신을 믿는다면서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자만심에 빠진 이들이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온다고 믿는 이가 기독교가 자기만의 종교요 자기만 구원받은 백성이라 주장한다면 그리고 기도의 대상도 무엇을 기도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신 다면서 자신의 탐욕 충족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이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중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여 ...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였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편이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각박하게 대하지 말고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대로 배불리 먹되 그릇에 담지는 말라” 하신대로 너그럽게 여유 있게 이웃을 대접해야 한다. 상대방을 경쟁상대나 부리는 대상으로가 아니고 소망, 기쁨, 자랑의 대상으로 타인을 보아야 한다. 현실에 초연하고 궁극적인 것에 시선을 집중할 때 신앙의 고상함과 품위가 드러나게 된다. 초대교회에도 위선, 이단, 음란, 당짓기, 우상숭배와 같은 죄들이 있었으나 성령이 오신 오순절 이후 배우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바뀜으로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표출되었다.

품위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즉 무신론자, 복술자, 창녀, 세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랑의 역사를 일으켰다. 무엇보다 죄를 자복하는 통회의 역사와 가치관의 변화로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물질관에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결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높은 도덕심과 영성 때문에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품위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은 이상적 삶을 사는 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지상에 살지만 이방인같이 살되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 천국백성은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다른 삶을 산다 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기독교가 그 질적 독특성 때문에 가졌던 품위와 고상함을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회복하여 성령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자.

-한국장로신문 2013년 8월 3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2021 사명자대회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까지 사전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가 진행되고, 본당 예배 인원이 초과될 경우 웨민홀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정상 교회 대면예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실시간 온라인중계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예배, 새벽예배, 수요일예배도 대면예배로 드리며,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한편, 다음 주일부터는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교회에서의 대면예배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할 계획이오니, 참석이 가능한 성도님들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 부 예배에 언제든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제15대 장로 예비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가 열립니다.

제직회원들께서는 내일 예배 후 나가실 때 배부되는 후보 명단을 수령하여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명자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작정하신 자율기도와 낮12시 3분간 기도에도 적극 동참을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1017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브도, 보디소프, 린롬, 수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용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작은이들의 벼이 되는 그리스도인 ”

■ 마 25:31-46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친구'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밝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받을 사람의 조건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섬기는 진실하고 실천적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우리 사회에 수많은 작은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 모든 삶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의 징조와 현상들에 대하여, 그리고 25장에서는 심판에 관한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째 비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교훈이라면 둘째 비유는 그 기간 동안 충성하라는 교훈입니다. 반면 셋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종말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상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인적 종말과 세상 끝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신앙고백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께 들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 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될 것겠습니까?
-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저주받을 자들에게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결정 짓는 기준이 뜻밖에도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치고 외면하고 살았던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작은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4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장애우들, 노숙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탈북 난민들, 극빈 국가의 국민들, 선교지의 주민들, 고독한 삶을 사는 노인들, 수용시설에 갇힌 사람들, 전 세계의 난민 등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긍휼과 사랑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동지적식으로 마침내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우리 책임을 다 해야겠습니다.

3. 이 시대를 치유해야
 종말의 징조에 관해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고 하셨습니다. 세상 이 험악해지고 살기는 더 팍팍해데, 사랑이 식어지는 악순환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딤후 4:3)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며, 스스로 냉수 한 그릇도 해결 못하는 작은이들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청지기들이요, 상처 입고 병든 세상을 위한 치유자들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우리 사회, 지구촌의 지극히 작은 자들의 벼이 되는 새로운 과제를 실천합시다. 이를 통해 신앙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고통당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을 나타내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천국의 복을 상속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하인선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전재홍 목사	이계홍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시18: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59(시 136)...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88(88)...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마 25:31-4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작은이들의 벗이 되는 그리스도안*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05(458)...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 안용곤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95:1-3 인 도 자
 찬 송 298(35) 다 함 께
 기 도 흥창훈 집사
 성 경 행 3:11-26 인 도 자
 세례식 손달익 목사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새롭게 되는 날” ... 설 교 자
 * 찬 송 436(493)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장석남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임송자 권사 II부:곽태수 권사
 성 경 행 7:51-6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늘이 열린 사람”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련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이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마 25:45)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1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minster 홀
수 요 예 배	I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제직회 공고

- 안건 : 제 15대 장로 예비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
- 일시 : 2021년 10월 24일 찬양예배 후
- 장소 : 본당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금일 세례식 실시 - 10월 세례(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장 레

- 故 박동린 집사(8교구 박해옥 피택권사의 부친, 손태현 집사의 장인, 11교구 박미정 피택권사의 부친) / 10월13일(수) 별세, 15일(금)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이번 주까지)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다음 주부터 교회 대면예배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할 계획이오니, 성도님들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든지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578명	458명	2,036명	464명	2,281명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기독교인들은 역사적 안목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우연적 사건으로 해석치 않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무서운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우리는 커다란 충격과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 뿌린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예루살렘 거민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저들의 죄가 더 많아서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회개를 재촉하시었다.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하여 민족의 죄까지 안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회개하는 운동이 전국 교회에 확산되기를 기도한다.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